농촌주민 50% "행복감 느껴"

농진청, "행복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가족·경제적 안정 순으로 꼽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여건' 부문에 대해 조사한 '2019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촌주민 2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평균 60.3점이었다.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30대 이하 68.7점, 40대 66.8점, 50대 60.6점, 60대 57.5점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41.7%), 가족(33.0%), 경제적 안정(16.9%) 순으로 답했다.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된 농업계획에 대한 질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답한 사람이 72.6%로 가장 높았으며, '축소할 계획이다(17.9%)', '중단할 계획이다(6.3%)', '확대할 계획이다(3.1%)' 순이었다. 농업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8.4%, 없는 가구는 61.9%였으며, 아직 잘 모르겠다는 가구는 29.6%였다.

은퇴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가 48.2%로 가장 많았으나 특정 연령에 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농가는 69.7세, 비농가는 61.6세에 은퇴를 희망했다. 월 생활비는 평균 180.2만원으로 5년 전 대비 46.1만원 상승했고 농가는 164.7만원, 비농가는 185.5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3.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이 83.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은 37.6%였으며, 읍 지역과 비농가, 5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저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가 30.2%, '나빠질 것' 27.1%, '보통'은 42.6%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에 관한 설문에서 여가활동의 주된 목적은 몸과 마음의 휴식(40.7%)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건강 유지와 체력 단련(27.2%), 즐거움과 재미(17.9%), 자기계발(8.2%), 친교·교제(6.0%)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문화·여가활동은 TV와 라디오 청취가 33.8%로 가장 많았고, 이웃 친구와의 교제와 동호회 모임 등 사회활동이 14.7%, 산책과 걷기 등 휴식이 14.2%, 헬스 등 스포츠 참여 활동이 13.7%였다. 농촌에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로는 찜질방·목욕탕·산책로·공원 등 친교·휴식 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영장·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18.3%), 영화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16.3%) 등이 높게 나타났다. 찾아가는 문화·체육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체육활동지도(22.2%), 영화상영(14.1%), 취미활동 교육(13.8%) 등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평균 48.9점으로 2014년 대비 증가(38.7점, +10.2점)이었으며, 5년 전보다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은 '좋아졌다(35.2%)'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거주 청년층의 81.8%는 이주민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삶에 대한 행복감은 68.7점이었으며, 행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가족(53.0%)을 꼽았다. 청년층의 평균 생활비는 217.9만원이었고, 63.9%가 정기적으로 저축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된 문화·여가활동과 가장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은 스포츠 참여활동(25.7%, 42.8%)이었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의 지역적 제약요인으로는 '적합한 시설과 장소가 없다(36.4%)'라고 답해 활동 중심 여가를 지원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50점으로 평균(48.9점)보다 높았고 만족 비율도 30.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는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로 이뤄진 국가승인통계로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김미희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농촌 거주 청년들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청년들에게 농촌이 매력적 거주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농촌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라며 "조사 결과가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이 어린이의 암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 3~5세의 어린이들에게 놀이꾸러미를 전달했다.

암예방,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전북대병원, 3~5세 어린이들에 놀이꾸러미 전달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어린이의 암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 3~5세의 어린이들에게 놀이꾸러미를 전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암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암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도내 어린이집 한 곳에 전달된 놀이꾸러미는 암 예방 주사위 만들기, 컬러링북, 퍼즐, 식품 구성자전거 스티커, 줄넘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친근한 놀이도구로 구성돼 있어,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암센터 유희철 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암 예방 생활습관을 심어주고 나아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미래세대의 암 발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암 예방을 위해 운동이나 식생활관리 등 암 예방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기 온라인시장 진출 돕는다

도-경진원, 여름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조지훈)은 도내 중소기업의 브랜드 홍보와 판로확대를 위해 여름맞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상품의 온라인 홍보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인 6, 7월에 맞춰 '여름맞이 제철식품 및 생활용품'을 테마로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인 위메프와 우체국에서 개최된다.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성과 증대를 위해 행사참여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할인 등 각종 판촉 행사를 운영한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유통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위메프는 7월 5일까지, 우체국은 7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쇼핑몰에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검색 또는 배너광고 접속을 통해 품질 좋은 전북도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파프리카 품종 평가회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 과채류연구소(군산시 대야면 소재)에서는 금값보다 비싼 종자 개발을 위해 골든시드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파프리카 품종 선발 평가회를 지난 12일에 실시했다.

이번 파프리카 평가회에는 전북도원, 경남도원, 농우바이오, 삼성종묘, 아람온, 하나종묘 등 6곳에서 31품종과 수입종 16품종으로 총 47품종이 평가되었으며, 현장에는 육종가와 더불어 채소종자사업단, ㈜코파, 전북파프리카연구회, 재배농가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전북도원에서 육성한 숙기가 빠른 중대과종인 미네르바레드, JBR-13과 농우바이오의 대과종인 로망스골드, 315품종, 아람온의 케이글로리아옐로우 등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경남도원의 미니 파프리카 품종과 삼성종묘의 토경용, 하나종묘의 청과용 품종이 선보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호남지방통계청과 전북연구원은 지난 12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이용 활성화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이용 활성화·지역통계 발전 공동 노력

호남지방통계청-전북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과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지난 12일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이용 활성화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이용 활성화 △전북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관련통계 개선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이번 전북연구원과의 MOU를 통해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가구 및 사업체 관련 각종 데이터와 전북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자료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특화된 통계 개발 및 분석자료 생산을 위한 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대내외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현황에서 미래사회의 위기와 변화를 한 발 앞서 예측해 적실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통계데이터 광주센터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이용 활성화에 선도기관이 되도록 호남지방통계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남지방통계청은 향후에도 지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정부혁신의 일환인 사각지대 없는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해 통계데이터 광주센터 이용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고려 최저소득보장 방안

국민연금공단, ISSA 연금전문위 총회 회원국들에 프로젝트 소개 3년에 걸쳐 연구활동 수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0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연금전문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회원국들에게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최저소득보장 방안'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향후 3년 동안 연구활동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사회보장협회는 사회보장제도의 각 분야를 망라하는 주요 이슈를 선도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전 세계 320개 이상의 사회보장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금전문위원회는 국제사회보장협회에서 운영하는 13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연금제도의 혁신·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개)정, 회원기관의 주요 혁신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단은 지난 2월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 발표한 프로젝트는 OECD 국가들 간 인구 노령화, 노동시장 변화, 연금 개혁 등 환경변화 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장기과제로서 향후 3년에 걸쳐 수행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는 2022년 '세계사회보장포럼(World Social Security Forum)'에서 발표하고 책자발간을 통해 전 세계 회원기관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로부터 '유족연금 제도설계방안' 연구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의 제도 운영 사례 제시 및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 회원 가입 이후 꾸준히 국민연금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해왔으며, 그 결과 2015년과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보장포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회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젝트 수행은 공단의 뛰어난 제도 운영 및 활동이 인정받게 된 계기"라며, "세계 320개 연금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온라인 화상수출상담실 설치… 오늘부터 중기 대상 무료 운영

중기중앙회, 해외바이어와 1:1 상담 등 온라인 전용 공간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상시적으로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화상수출상담실'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중소기업 대상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에 위치한 화상수출상담실은 수출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화상상담 솔루션(ZOOM 등)을 활용해 해외바이어와 1:1 수출상담, B2B 협업 등 온라인 화상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4)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설 전용 상담실을 구축한 만큼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수요에 따라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유럽 소·부·장 강국의 바이어를 매칭하는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일반 산업재, 생활소비재, 식품 등 업종별·테마별 온라인 화상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오픈뱅킹 전용 상품' 런칭 기념

전북은행, 15일부터 '주라주라~ 오픈뱅킹 캐시백 주라'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늘부터 잇따른 오픈뱅킹 전용 상품 런칭을 기념해 '주라주라~ 오픈뱅킹 캐시백 주라' 이벤트를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간 중 스마트뱅킹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평생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타행계좌 등록, 이체, 자금모으기, 모임서비스, JB Smart-App 예·적금 가입 등의 서비스 이용 시 최대 6천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응모권을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오픈뱅킹 전용상품인 'JB Smart-App 예금'은 최고 연 0.7%의 우대금리를, 'JB Smart-App 적금'은 최고 연 1.8%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픈뱅킹 서비스의 편리함도 경험하고 높은 우대금리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스마트뱅킹앱에서 계좌 개설 등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리성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픈뱅킹 서비스 이벤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